



이명박 정부 전반기 특허청 규제개혁 추진성과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언론매체에 화제가 된 것이 일명 “전봇대 뽑기”로 대변하는 친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규제개혁이었다. 그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규제들이 철폐·완화되었다. 우리청에서도 그동안 특허행정 전반의 전봇대를 찾아 뽑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기업, 발명가 등 특허고객의 편의 증진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 신성장동력 구축 등을 위한 특허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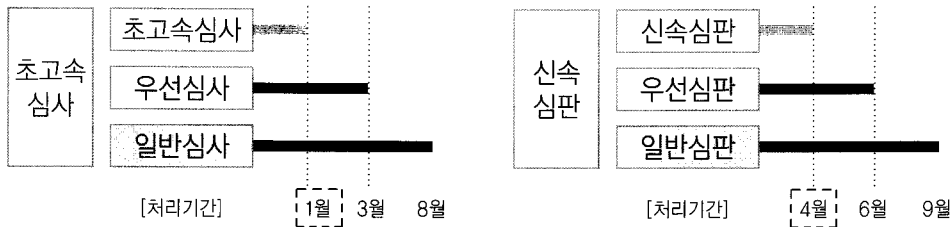
그 결과 녹색성장 기초를 반영한 녹색기술에 대한 초고속 심사와 신속심판 제도 도입 등 30건의 법령 정비를 통해 총 71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여 연간 약 850여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특허행정 규제개혁 성과 중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속 심사 및 신속심판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보다 신속한 권리취득과 분쟁해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특히, 녹색특허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속한 심사와 심판 처리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녹색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 심사 및 신속심판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녹색기술에 대한 초고속 심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서 녹색기술분야에서의 신속한 권리취득을 통해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구분	미국	일본	EPO	중국	독일
초고속심사	×	○	×	×	×
빠른심사	○	○	○	×	×

이와 같은 심사 및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연간 약 41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구분	경제효과	산출근거
초고속 심사	315억 원	182만 원1) × 17(개월2) × 1,018(연간 초고속심사처리 예상건)
신속 심판	100억 원	182만 원 × 5(개월3) × 1,097(연간 신속심판처리 예상건)
합 계	415억 원	1) 출원 1건의 심사기간 1개월 단축 효과 = [심사기간 단축효과] / [단축기간] * [연간등록특허] (2조 4,464억 원 / 12.3개월 / 109,339건) = 182만 원 * '07년 연구용역결과(산업연구원), ** 22.1개월('03년) → 9.8개월('06년), *** '06-'08년 등록특허 2) 심사처리 단축기간(17개월): 18개월 → 1개월 3) 심판처리 단축기간(5개월): 9개월 → 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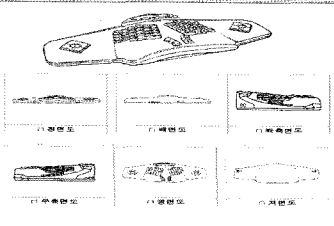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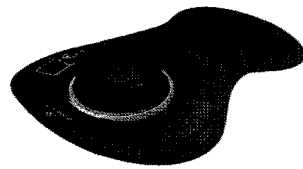


둘째, 출원서식 및 지식재산권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출원인의 출원서 작성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고 권리유지를 위한 갱신제도 운영이 너무 엄격하여 고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디자인 출원 시 3차원 입체도면 제출을 허용하여 출원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 2D도면과 3D도면 출원 비교 〉

2D 도면	3D 도면
	
평면 이미지 파일(JPG, GIF 등)	입체 3D 파일(3ds, Max 등)
이미지 파일 총 7개	3D 파일 한 개
육면도 및 사시도의 7개 도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체형상을 파악	입체형상인 도면을 회전시켜 전체적인 형상 파악

또한, 선진 5개 특허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간 합의로 '공동 특허출원서식'을 도입하여 우리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외출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을 매 10년마다 하여야 하는 것을 별도의 출원 절차 없이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권리자의 부담도 경감시키는 등 연간 약 377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 분	경제효과	산출 근거
3D도면제출	25억 원	도면작성비용 절감액(2,162백만 원)1)+보정비용 절감액(121백만 원)2)+ 도면심사시간 절감액(212백만 원)3)
공동출원서식	163억 원	출원서 작성성 소요시간 절감분(2시간)×시간당 변리사비용 절감액(190,800원)4)×선진 4개국특허청(미·일·중·유럽) 특허출원건수(42,724건)
상표권갱신개선	189억 원	대리인선임비용 절감액(174억 원)5)+갱신출원비용 절감액(15억 원)
합 계	377억 원	1)도면작성비용 절감액 : 최근 3년평균 출원건(54,050건)*3D도면 출원 예상율(0.4)*건당 2D도면 작성비용(10만 원) 2)보정비용 절감액 : 최근 3년평균 출원건*3D도면 출원예상율* 보정비용(0.07)*건당 2D도면 보정비용(8만 원) 3)도면심사시간 절감액 : 최근 3년평균 출원건*3D도면 출원예상율* 건당 도면심사 소요시간(1시간)*심사관 시간당수당(9,796원) 4)시간당 변리사비용 절감액 : 미국의 시간당 변리사비용(400\$)의 1/3 5)대리인선임비용 절감액 : 출원서 작성 소요시간 절감분(2시간)* 시간당 변리사비용 절감액*최근 3년평균 갱신 출원건(45,728건)

셋째, 특허수수료 납부방식 및 절차를 정비하였다.

특허수수료 납부절차가 복잡하고, 상표등록료의 10년치 일괄납부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등 고객에 불리한 수수료 운용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권 양도 시 양도증서에 첨부하는 인지세 및 이전등록료 납부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번 신청으로 모든 수수료를 자동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일괄 납부하던 10년치 등록료를 2회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수수료 납부체계 구축을 통해 연간 약 6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였다.

우리청은 향후에도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규제완화·철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한국특허 영문요약서 해외에서 인기

한국특허기술정보가 필요한 외국인들은 한국특허 영문요약서와 행정처리절차 정보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최근 해외에서 한국특허영문초록(KPA*)에 대한 수요가 매년 30% 이상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특허정보 영문검색서비스(eng.kipris.or.kr, KIPRIS)를 개선, 지난 12월 15일(수)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 KPA : Korea Patent Abstracts

KIPRIS는 한국특허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특허를 비롯하여 미국 등 8종의 해외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한국특허기술을 영문으로 요약한 KPA*를 영문검색서비스에서 무료로 검색·열람토록 제공하여 국내·외 이용자들의 특허동향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 해외특허 : 미국, 유럽, WIPO,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KIPRIS 영문검색서비스는 '도면일괄보기' 및 검색결과 분류통계 기능을 추가하여 분석능력을 강화하였고, KPA 검색결과에 영문행정처리정보까지 원클릭으로 제공하여 해외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높였다.

* 행정처리정보 : 특허의 출원, 심사 등과 관련된 서류접수 및 발송상태정보

또한, 해외 이용자를 위한 영문매뉴얼도 새롭게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KIPRIS 영문검색서비스 개편이 국내 특허를 해외에 알리고 보호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해외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국내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화 콘텐츠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납부는 편리해지고, 부담은 줄어

2011년 1월부터 개인에게만 허용되던 특허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4월부터는 4년차 이상의 특허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낼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허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은 은행 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서 중소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결제수수료도 없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은행 방문,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 가장 적합한 납부방법을 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에 당장 현금이 부족할지라도 신용카드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납부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된 2~3개월의 무이자 할부납부를 이용할 경우 납부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년차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이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권리자는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하거나,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권리자들은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년분의 연차등록료 일괄 선납이 활성화되면 권리자들은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 1월 ~ 11월 동안 연차등록료 수입의 약 1.2%가 3년분 이상 일괄납부되었음

특허자동평가시스템, 특허분석기능 날개 달다

특허청은 대량의 특허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평가하고 유사한 특허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경쟁기업과의 특허를 비교·분석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특허자동평가시스템은 사용자가 특허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특허의 질적 등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특허문서에 나타나 있는 각종 정보를 계량화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며, 작년 12월 처음 개발되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서비스되고 있다.

금년에는 기존 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특허의 인용·피인용 관계 분석, 특허의 심사·심판이력 조회, 유사특허 검색,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량·정성 분석기능 등을 추가하여 기업·공공연구기관의 R&D 전략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수많은 특허 중에 자신의 연구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특허를 찾아내거나, 자신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약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전문가를 통해 특허조사분석지도(Patent Map)를 작성해야 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특허자동평가시스템은 특허의 평가와 정보분석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국가 R&D 특허의 질적 평가,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R&D 전략 수립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종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이 특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특허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하며, "특허자동평가시스템은 이러한 전략적인 특허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IP리더 5,000명 양성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저비용·고효율의 e-러닝을 통하여 IP리더 5,000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IP리더'란 중소기업내 R&D 분야 연구원으로서 다른 연구원들에게 지식재산권 지식을 전파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선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11년 600명, '12~15년 각각 1,100명 등 '2015년까지 5,000명의 IP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 전체 종사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R&D 연구인력도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지재산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중소기업 IP리더 인력양성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기초과정 58시간, 심화과정 38시간 등 총 96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총 96시간의 교육과정에는 e-러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리사 등 실무능력이 있는 전문강사를 활용한 오프라인 교육과정 16시간(기초 및 심화과정 각각 8시간씩)이 포함된다. 교육내용은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의 검색 및 활용, 특허출원 절차 및 등록요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기업의 전략적 특허관리, 특허분쟁의 대응방안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허청 홍만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IP리더는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연결하여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캐릭터 상위 40개 중 디자인등록은 단 6건에 불과

특허청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공동선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캐릭터 100'의 부문별 상위 10개 캐릭터의 지식재산권등록현황을 분석한 최근자료에 의하면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록현황이 각각 45%,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이 5천억 원에 달하고 브랜드 가치만도 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1위 선정작 뿌까마저도 상표로는 등록되어 있으나 디자인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표장이 아닌 뿌까의 형상, 모양을 이용한 물품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권리범위가 분명치 않아 이를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일명 엽기토끼로 알려진 마시마로 캐릭터의 형태를 모방한 봉제인형이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원저작자가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아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가하지 못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디자인등록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캐릭터, 그래픽 심볼 등을 디자인의 등록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캐릭터를 이용하여 생산될 수 있는 무수한 물품들을 일일이 디자인으로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캐릭터 관련업체로서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캐릭터산업의 시장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조사결과, 약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OSMU 콘텐츠로 인정받아 최근 정부도 신성장동력 8개 전략 품목 중에 하나로 콘텐츠산업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 역시 캐릭터 디자인업계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캐릭터를 디자인의 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물품에 구분없이 캐릭터 그 자체로도 창작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유특허 속에 '진주 특허' 가 있었네!

특허청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이후 3년 이상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출원한 특허를 말하며,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2,237건에 달한다.

특허청에서는 국유특허에 대해 객관적인 기술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전문가를 통해 국유특허 509건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국유특허는 기술성과 시장성 부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유특허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터넷기술장터인 IP-Mart에서 기술가치 평가보고서를 열람하여 해당기술의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우수특허로 평가된 국유특허를 장기간 동안 초기 비용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유특허를 개발한 발명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높은 속도도 올릴 수 있으므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국유특허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국유특허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국유특허 목록과 신청방법은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의 국유특허코너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로(국유특허사용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172)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살리는 디자인 우선심사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사업의 활로를 출원디자인의 우선심사제도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심사제도란 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심사와 달리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이나, 출원한 디자인을 제3자가 실시' 하는 등 심사처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중소기업에 의한 우선심사신청건은 대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우선심사신청건의 82%(5년 평균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벤치, 자전거보관대, 도로용 펜스, 이동화장실, 공중전화부스, 가로등 등 공공디자인에 약 62%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자인등록출원에 중소기업의 우선심사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각급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자 선정 시 디자인권 보유 여부를 입찰 시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신속한 심사를 받아 권리를 획득할 필요성이 크나,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일반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9~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한 (주)누리플랜, (주)디자인메소 등의 업체에 따르면 등록디자인 제품에 한하여 납품계약(입찰) 자격이 주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일반심사(9~10개월)보다 빠른 우선심사제도(2개월 이내)를 활용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아 납품(입찰)을 할 수 있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한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신속한 디자인권의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은 우선심사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디자인 출원현황(최근 5년 : 2006 ~ 2010.10.)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10말 기준
	건수	증감(%)	건수	증감(%)	건수	증감(%)	건수	증감(%)	건수
전 체	51,050	12.9	54,362	6.5	56,750	4.4	57,737	1.7	267,030
대기업	6,496	2.2	6,700	3.1	6,590	△1.6	6,107	△7.3	30,689
중소기업	36,362	15.8	37,397	2.8	37,457	0.2	44,316	18.3	188,633

※ 증감 : 전년 출원 대비 증감률이며, 2010년은 10월말 기준임

'중소기업'에 '중견기업 및 국내 개인 사업자' 포함

우리 특허정보, 외국심사관도 본다

외국 특허청 심사관이 한국 특허정보를 검색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영문으로 번역된 한국 특허정보의 검색건수가 2006년 3천여 건에서 2010년 20만여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허청은 2005년 11월부터 국내 특허심사 관련문서를 영문으로 자동 번역하여 외국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K-PION(Korean Patent Information Network)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제출원제도를 통하면 하나의 특허를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나라의 심사관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 심사정보를 공유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K-PION 서비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37개 특허청에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이 연간 2만 6,000여 건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1만 2,000여 건 이상 검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독일, 일본, 타이완 등도 검색건수가 높다.

이들 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전체출원건수 중 한국인 출원순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한국인의 출원비중이 각각 7%, 8%로 4위에 이른다.

또한 한국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은 2009년 15.4개월로 25.8개월인 미국 등에 비해 짧기 때문에, 외국특허청이 같은 출원을 심사할 때 우리 심사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가 외국에서 좀 더 신속하게 심사될 수 있다.

기존 K-PION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제공되었다. 2011년부터는 제공 방식이 확대되어 인터넷뿐만 아니라 각국 특허청의 내부 심사시스템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엄태민 정보협력팀장은 "K-PION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국 특허청 심사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우리나라 특허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자인권 창출규모도 G20 의장국다운 면모 보여

특허청이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간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0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특허청의 디자인 출원건수는 G20회원국들 중 중국, EU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럽공동체 27개국의 디자인출원량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EU를 제외할 경우 2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여러 국가에 출원한 디자인 건수도 약 3,900건에 달해 G20회원국들 중 5위에 해당하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디자인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역시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Designium의 연구결과에¹⁾ 의하면 한국의 디자인경쟁력(Design Competitiveness) 순위가 2002년 25위에서 2007년에는 세계 9위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나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세계 국가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수치와 비교해볼 때 국가경쟁력(11위)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²⁾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2010년 심사명장(明匠)」 발표

특허청은 지난 12월 13일 특허 및 상표 심사분야의 우수 심사관 5명을 '2010년 심사명장(明匠)'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심사명장(明匠, Maestro)'은 특허청이 기관대표업무인 심사업무에 대한 심사관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며, 향후 심사성과가 탁월한 심사관을 매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명장은 특허청이 정한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심사관 중 엄격한 자체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최대 1명 이내로 선정된다.

* 심사경력 7년 이상의 책임급 이상 심사관 중, 재직기간 동안의 심사누적실적 분야별 상위 30% 이내 및 최근 2년간 심사평가 결과 분야별 상위 30% 이내

심사명장으로 선정된 심사관에게는 명장 인증서 및 명패 수여와 함께 포상금이 지급되며, 특허청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심사관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청 대표 심사관으로 등재되는 명예가 주어진다.

(특허청 홈페이지)특허청 소개>직원검색>심사관 명예의 전당)

2010년도 초대 심사명장은 5개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다.

- 상표·디자인분야 신재식 심사관 (심사경력 7년, 총 16,797건 심사, '10년 상반기 심사평가 우수심사관)
- 기계금속건설분야 박균성 심사관 (심사경력 12년, 총 2,633건 심사, '10년 상반기 심사평가 우수심사관)
- 화학생명공학분야 조성호 심사관 (심사경력 11년, 총 3,224건 심사, '09년 하반기 심사평가 우수심사관)
- 전기전자분야 윤세원 심사관 (심사경력 12년, 총 3,791건 심사, '10년 상반기 심사평가 우수심사관)
- 정보통신분야 오제욱 심사관 (심사경력 12년, 총 3,648건 심사, '00년 하반기 심사평가 우수심사관)

한편, 특허청은 2010년 1월부터 디자이너가 제품개발 때 만든 3D 파일을 디자인등록출원 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3차원 도면출원시스템을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어 이웃 일본과 중국 특허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인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여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국내디자이너들에게도 한층 더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1) Design Innovation Center at th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in Helsinki(2008) Global Design Watch 2008.
2) New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2003). Building a case for added value through design.

국책사업단 '돈되는 강한 특허' 창출 기여

대학·공공연 국가 R&D 사업단(이하 국책사업단)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단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수립·지원함으로써, 국책사업단의 '돈되는 강한 특허' 획득이 늘어나고 있다.

* (특허전략전문가) 교수, 대기업 연구원 및 기업 특허부서장 출신으로 R&D 경력과 변리사 등의 IP 경력을 동시에 보유한 지식재산 전략 전문가

특허청은 국책사업단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10년 국가 R&D 특허전략전문가 파견 사업 최종 발표회를 지난 12월 8일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국책 사업단, 특허청 및 R&D 특허센터(특허전략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10년도 사업 주요성과 및 국책사업단별 추진전략 등을 공유하여 '11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사업은 '08년부터 국책사업단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략적 지재권 창출 전략을 수립·지원함으로써 강한 특허 창출을 유도하고 지식재산 교육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10년도는 BT·NT 등 차세대 융합기술분야를 중심으로 10개 국책사업단을 지원하였으며, 강한 특허 획득 전략, R&D 방향 제시 등 총 250여 개의 지식재산과 연계한 R&D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능형 나노바이오 소재연구 사업단(이화여대)에 특허전략전문가가 파견되어, 사업단이 보유한 유전자 식별기술[ODID(Optical Dna IDentification)] 분야 원천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최강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도록 주변특허 창출 전략을 지원하여 양산형 원천특허*를 창출하였다.

* (양산형 원천특허 창출) 인삼 품종, 나이 등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하여 국내출원하고 PCT 출원 준비 중 [MBC 뉴스데스크 등 언론 10회 이상 보도]

'10년 사업에 참여한 남태현 나노구조 생체에너지 융합사업단장(경상대)은 "특허전략전문가가 사업단 연구분야에 지재권 창출전략을 제시하여, 요소기술 특허 10건을 융합한 원천특허를 PCT 국제출원하는 등 핵심·원천 특허 창출형 R&D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차후에도 동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이러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공 특허청